



NEWS LETTER

2021년 4월 12일 Vol. 403

혜선 스님, 병원발전기금 2천만 원 전달

대구 금용사 주지 혜선 스님이 지난 3월 31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발전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경주병원 발전기금, 동국대학교의과대학 학술연구 진흥기금,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인재육성장학기금 등 지속적인 기부를 했다. 혜선 스님이 현재 까지 기부한 누적금액은 5억 4천 2백만 원에 이른다.
혜선 스님은 “약사여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더욱 발전해 그 공덕으로 모든 환자가 고통 없이 한량없는 행복을 누렸으면 한다”며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과 직원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교계종립병원으로써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권범선 병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이 지난 3월 29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다.
참여 방식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 팻말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범선 병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다음 주자로는 일산복음병원 손정일 병원장을 지목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공감한다”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전 임직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생활 속에 안전한 교통 환경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 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등재



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가 공동 1저자로 연구한 논문이 지난 3월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회지(IF 10.228)에 게재돼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논문은 ‘난치성 비염종의 새로운 생체표지자로서의 제2형 골형성 단백질’에 관한 것이다.
만성 부비동염(축농증)은 만성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약 7-12%가 코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 중 하나다. 이 부비동염은 비강 및 부비동 점막의 염증을 동반한 면역병리학적 문제로 생기는 병으로 최근에는 점막 아래의 뼈에 염증(골염)이 수술로도 호전이 어려운 난치성 만성 부비동염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진엽 교수는 “이번 연구는 BMP-2의 난치성 만성 부비동염에서 생체표지자의 역할을 보여준 결과로, 부비동염에서 BMP-2의 역할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만성 부비동염 수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생체표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료협력센터, 일산월내과와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지난 3월 31일 일산월내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산월내과는 올해 초 개원한 의원으로 소화기내과와 산부인과, 건강검진을 주 진료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양재준 진료협력센터장과 월내과 이종환 병원장이 참석해 양 기관의 원활한 진료교류를 약속했다.
양재준 센터장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의뢰되는 환자들의 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